중 국

중국 주요 플랫폼, 온라인 도서 판매 위반행위 특별 관리 추진

2026. 04. 29.
국제협력팀
중국사무소

2026년 4월 7일~8일, 더우인(抖音), 텐센트(腾讯), 샤오홍슈(小红书) 등 중국 주요 온라인 플랫폼은 온라인 도서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해적판 도서 유통, 출판물 유통 무허가 영업, 악의적 저가 판매, 플랫폼 감독·관리 회피 등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 관리 조치를 추진한다고 발표함.

○ 온라인 도서 유통 위반행위 관리 강화

더우인, 텐센트, 샤오홍슈 등 중국 주요 온라인 플랫폼은 잇따라 온라인 도서 판매 위반 특별 관리 공고를 발표하여 다양한 침해 및 경영 위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이 조치는 온라인 도서 발행의 질서를 유지하고 출판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도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텐센트는 3개월간 '도서 온라인 발행 질서 규범' 특별 조치를 추진하여 무허가 출판물 운영 및 불법 출판물 판매 혐의 등을 집중 정비할 예정이며, 샤오홍슈는 무허가, 무단 복제 및 전자책 판매 등 불법 도서 판매행위 전면 조사, 이용자 신고 활성화 및 즉시 대응을 추진함. 더우인은 불법 도서 및 악의적 저가 판매 등에 대한 조사 강화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격히 단속할 방침임.

○ 저작권 보호 협력 강화 필요성

중국판권협회 베이징 지역 15개 출판사가 참여하는 반해적판 연맹은 이번 조치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주체적 책임을 강화하는 국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한 긍정적 사례로 평가함. 또한 온라인 불법복제 도서 판매는 출판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서 출판업계 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저작권자, 집행기관이 다방면으로 협력해야 함을 강조하며, 온라인 도서 판매 플랫폼에 첫째, 온라인 도서 유통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기반의 장기적 관리 체계 마련, 둘째, 기술 기반 사전 예방 및 통제 강화와 위반 상인에 대한 처벌 강화, 셋째, 중국판권협회 반해적판 연맹과 소통·협력체계 구축 및 신고·처리 절차 효율화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 참고자료

중국판권협회(中国版权协会)
- https://www.csccn.org.cn/detailsView?type=associationUpdatesList&id=54